수질개선·소득증대…'일석이조' 토하 서식장

강진군 옴천면에 조성 박차
하반기 토하 입식 본격 생산
가공시설·체험장 설치 나서

강진군 옴천면 기좌리에 조성중인 토하 자연서식장.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강진군 옴천면이 1급수에 서식하는 토하 자연서식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3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 K-water 광주전남지역본부, 옴천면 월곡영농조합과 공동 업무협약(MOU) 체결한 후 토하 자연서식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 농·어업의 최적 조건을 갖춘 옴천면의 상수원 수질을 보존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옴천면은 상수원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로 토지이용 등이 제한됨에 따라 주민 소득창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수질개선과 주민소득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벼농사 소득보다 2~3배 높은 토하 자연서식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최적지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수질개선사업비 1억7000만원을 지원받아 토지사용협의 등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토하를 입식해 내년에는 소득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강진군에서는 자체적으로 2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에 토하 자연서식장 1.5ha를 설치 완료했고, 올해에도 2억여원 사업비를 확보해 현재 3개소 2ha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했다.

이와 함께 군은 토하에 대한 6차 산업화를 위해 국비 5억원을 확보해 토하젓 공동가공시설, 토하잡기 체험장, 토하젓 만들기 체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 5000㎡를 매입해 현재 설계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청정 토하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그동안 청정지역 옴천면의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던 중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게 됐다"며 "국비를 확보하고 4개 기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진=남철희기자 choul@

기자 노트

민선 단체장 부인과 내조

김 용 기
중부취재본부장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일컬어 '소통령'이라고들 한다. 선출직으로 전환되면서 단체장에게 막강한 힘이 쏠리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선 단체장 부인들의 치맛바람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오죽하면 "남편이 면장이면 부인은 군수, 남편이 군수면 부인은 도지사, 남편이 도지사면 부인은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말이 회자되곤 한다.

지자체마다 단체장 부인들에 대한 이런저런 입방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전남 모 지역은 군수부인 구설수 때문에 당락이 갈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어찌 보면 치맛바람이 지방자치를 흔들고 있다.

공무원 인사, 이권 개입에 이르기까지 단체장 부인들에 오히려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 고위 관료들도 부인들의 잘못된 처신으로 출세를 망치는 일이 잦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지역 한 단체장 부인의 조용한 내조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 부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관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간부급 부인 모임(일명 백합회)도 영암군은 주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수 부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다 보니 부군수 이하 실과장 부인들의 입방아에도 오르내리는 일이 없다. 대학시절 남편인 전 군수와 함께 학생운동을 하면서 동고동락을 했던 터라 남편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몸을 낮추는 내조의 참모습은 찬사를 보낼만하다.

내조는 아내가 남편의 일이 잘 되도록 도운다는 뜻이다.

과거 왕조시대에 왕비들은 왕이 정사를 바르게 다스리도록 현숙함과 덕망으로 내조했다고 한다. 치맛바람 날리는 '옥상옥' 내조자가 아닌 드러나지 않고 행실이 어진 '그림자' 내조자들을 기대해 본다. /kykim@

'제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오는 31일 막을 올린다. 지난해 축제 모습.

정남진 장흥 물축제 지상 최대 물싸움

31~8월 6일까지 탐진강 일원

올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제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오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 탐진강과 우드랜드 일원에서 열린다.

'물과 숲-휴(休)'의 주제와 '시원한 추억의 장! 차고 넘치는 흥!'의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이번 물 축제는 '2015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와 같은 기간에 열려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물축제는 유명가수 공연과 관람 중심의 행사를 줄이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개막을 알리는 '살수대첩 퍼레이드'에는 관광객, 기관·사회단체, 학생 등이 대거 참여해 물싸움과 거리행진을 벌인다.

31일 개막 주제 공연으로는 장흥의 탄생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장흥의 역사를 소재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물 축제와 연계해 표현한 창작 댄스컬(댄스+뮤지컬)이 펼쳐진다.

주민과 관람객이 참여해 탐진강 물속에서 벌이는 '수상 줄다리기'와 '탐진강 건너기 수영대회'도 새롭게 선보인다.

축제기간 중 매일 오후 2시에는 군민과 관광객이 한 데 어울려 물총과 물풍선, 바가지를 이용해 펼치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이 열린다.

맨손 물고기 잡기도 어린이와 가족들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다. 탐진강에 대나무 발과 그물을 쳐 만든 체험장에는 장어와 메기, 잉어 등 여러 가지 민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으며, 최대 2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군이 지난 21일 군청에서 장흥식품 등 4개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장흥군, 4개 기업과 200억 투자 협약

바이오식품 산단 등에 생산시설

장흥군은 지난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하이덱스스토리지㈜, 탐진유기자원㈜, ㈜에이엠티, 장흥식품 등 4개 기업과 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업은 내년까지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와 탐진강 일원 2만3100㎡(7000평) 부지에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63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덱스스토리지㈜는 장흥읍 연산리 탐진강 일원에 110억원을 투자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수상레포츠센터 및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

탐진유기자원㈜과 ㈜에이엠티, 장흥식품은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에 각각 30억원을 투자해 톱밥 가공시설과 정밀기계 제조시설, 젓갈 가공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는 장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줄 기회이자 꿈"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장흥을 건설해 투자기업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를 '투자유치 원년'으로 선포한 장흥군은 1부서·1기업 이상 기업유치를 위해 106개의 타깃기업을 선정하고, 연내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분양률 50% 달성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2014년 기업하기 좋은 군'에 선정된데 이어 지난 3월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혜택과 생산제품에 대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까지 가능하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천년의 향기 담은 청자' 특별전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은 '제43회 강진 청자축제'를 기념하여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모란(牡丹) - 천 년의 향기를 담은 청자' 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은 청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꽃 문양 중에 모란 문양이 어떠한 장식기법과 문양 구성으로 표현됐는지를 알 수 있다. 국립 중앙박물관과 국립 광주박물관,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등 외부기관에서 16점을 대여했으며, 박물관 소장유물 4점을 포함 총 20점의 유물을 전시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 새얼굴

"사각지대 없는 복지행정 역점 추진"

김 양 수 영암부군수

"살기좋은 영암군을 만들어 가는데 신명을 다 바쳐 일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양수(55) 영암군 부군수는 "왕인 문화축제를 전국 제일의 축제로 키워내 '으뜸 관광 영암'을 만드는 일, 군민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행정을 펼치는 일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영암발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원 상호간 화합과 소통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함평 출신인 김 부군수는 광주 살레시오고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와 행정대학원(행정학)을 졸업했으며, 1986년 7급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후 전남도 사회복지과장, 전남도의회 입법지원관 등을 지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40~50년생 50만주 식재됨
현재묘목 가격이 주당 3000원 정도 거래됨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3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 ·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월산동 2층건물 매 13억5천(보1억 월68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흑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 (조정가)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륵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350㎡ 매 9억4천만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 권장업종 | 면 적
1층 | 은행(ATM),편의점, 소매점 | 임대완료
2층 | 은행, 보험, 증권 기타사무실 | 잔여 1201㎡
3층 | | 1629㎡
4층 | | 1267㎡
5층 | | 1400㎡
6층 | | 임대완료
7층 | | 1400㎡
8층 | | 1383㎡
9층 | | 잔여 591㎡, 307㎡
10층 | | 1342㎡
11층 | | 1307㎡
12층 | | 임대완료
13층 | | 임대완료
14층 | | 임대완료
상무비즈센터
(구.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2633-1100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